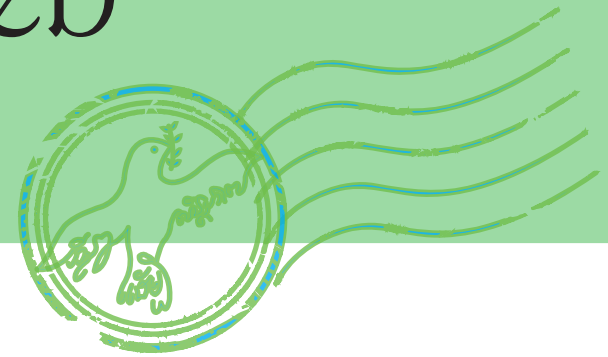


Letter from Banteay Prieb

Vol.17 2014.04~06





Contents

1. Opening Letter

- 윌 맨 (아웃리치팀 매니저)

3. Photo Diary

- 셸린의 마지막 수업 (사진 이관석)

5. Special Thanks To

-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 Interview

- 윤 피어리, 디 멩 (학생담당선생님)

4. News

- 반티에이 브리업 소식

Letter from Banteay Prieb



지뢰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슬펐고, 제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 저는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더 이상 제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전세계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티에이 뿌리업을 알게 된 것은 1992년도입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제가 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출신 나라,

인종, 언어, 종교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사랑, 친절함, 연민, 공감을 가지고 평화, 자유, 정의, 평등,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을 보살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를 비롯해 이 곳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티에이 뿌리업이 어떻게 사랑과 평화의 집으로써 존재하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반티에이 뿌리업을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시작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토양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그들의 헌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하는 일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모든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은 센터의 장애학생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티에이 뿌리업이라는 토대 위에 한 가족, 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웃리치팀 매니저,
맨 율 드림.

+맨 율 선생님은 1993년 반티에이 뿌리업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전자반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9년 아웃리치 창립멤버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아웃리치팀 매니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학생담당 선생님과의 인터뷰

학생담당 선생님이로 일하고 계신 윤 피어리 & 디명 선생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일시: 2014년 5월 6일

장소: 사무실 옆 벤치

(윤 피어리 선생님 P, 디명 선생님 D)

1) 언제부터 학생 담당 선생님이로 일하셨나요?

P: 2009년도부터 학생담당으로 일했어요. 2008년도에 이곳의 농업반 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담당 업무와 함께 농업반 일도 도왔어요. 지금은 학생 담당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농업반에 가서 구경하고 학생들과 장난치며 놀아요. 저는 이곳의 학생이었을 때부터 농업반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1년 과정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곳이 정말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년 과정을 마친 후 오인돈 신부님과 교장선생님께서 이곳에 머물면서 일하라고 제안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낯가리는 성격이어서, 근무 초반에는 아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별로 말을 많이 안했어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말은 많이 안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웃음). 학생 담당으로써 학생들과 많이 교류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학생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대할 때 어떤 학생은 예쁘고, 어떤 학생은 안 예쁘다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돼요.

D: 저는 작년(2013년도)에 이곳의 기계반 학생이었어요. 1년 과정이 끝난 후 교장선생님께서 이 곳에서 일해보라고 하셨어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정말 기뻐요.

2) 학생 담당으로써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P: 학생들이 공부와 기숙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보고,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요. (보통 학생들이 왜, 언제 많이 아픈가요?) 우기(6월부터 10월까지)에 덩다가 비가 오고 덩다가 비오기를 반복하는 날씨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아파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 다루기가 더 어려워요(웃음). 이 곳의 학생들은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 때가 있어요.

D: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학생들이랑 놀고,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요.

3)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P: 주로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 학생들과 함께 많이 놀아요. 남학생들을 배구를 하고 여학생들은 테니스를 치죠. 주로 명절 때나 큰 휴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큰 파티를 여는데, 그 때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모두 어우러져서 노는 것이 제일 좋아요. 반티에이 뿌리업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반티에이 뿌리업에 오기 전에는 집에서만 할 일 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놀 수 있으니까요.

4)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P: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나열하기 힘들어요. 반티에이 뿌리업에 있을 때 성실하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학생들이 몇몇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D: 다 기억에 남아요. 학생들이 이제는 서로를 다 알고, 서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반티에이

쁘리업에 오기 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밌어요. 이제는 서로가 다 친구여서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짓궂게 농담도 하고 하거든요.

“반티에이 뿌리업의 좋은 점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5) 반티에이 뿌리업의 학생시절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P: 학생이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놀러 나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놀러나가는 대신 농업반 농장에 자주 갔어요. 시간 있을 때 공부하고, 농업반에 가서 일 하는거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농장에서 돼지와 닭을 돌보며 농업반 친구들과 다같이 도와서 일했어요.

D: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간 있을 때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같이 놀았어요.

(반티에이 뿌리업의 제일 좋은 점은?)
반티에이 뿌리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여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당시 기계반에 스태프가 충분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여기에서 일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계반 학생일 때는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 샵을 차리고 싶었어요. 반티에이 뿌리업의 좋은 점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학생이 저의 힘이에요.”

6) 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일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P: 학생들 만나서 학생들과 함께 놀 때!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 저도 행복해요.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저도 문제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학생이 저의 힘이예요.

D: 퇴근 하고 나서 학생들과 얘기하고 함께 놀 때 행복해요. (디명은 반티에이 뿌리업의 넘버 원 배구 선수이다.)

7) 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일하면서 언제 가장 힘든가요?

P: 학생들이 서로 돕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요. 1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과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D: 주말에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 술은 많이 마시지 않을지 걱정돼요.

“이 곳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어요.”

8)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P: 저는 농업반 일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만의 농장을 가지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가족들은 제가 농장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힘들까봐서요. 그리고 개인 재봉샵도 가지고 싶어요. 이 재봉샵은 농장을 지원하는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D: 기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개인 샵을 차리고 싶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요.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어요.

9)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P: 봉사자들이 지금처럼 매년 많이 왔으면 좋겠고, 봉사자들이 학생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D: 여기서 일하는 게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윤 피어리 선생님은...

2008년 21기 학생으로 농업반에서 공부한 후, 2009년부터 반티에이 뿌리업의 학생담당 선생님이로 일하고 계십니다. 학생담당 업무와 함께 반티에이 뿌리업 내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매 쉬는 시간과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주십니다.

디명 선생님은...

2013년 26기 학생으로 기계반에서 공부한 후, 2014년부터 반티에이 뿌리업의 학생담당 선생님이로 일하고 계십니다. 학생담당 업무와 함께 반티에이 뿌리업 내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Celine 의 마지막 수업

사진. 이관석





Celine은...

한국을 베이스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현대 무용가이다. 이 주에 한 번씩 주말동안 반티에이 브리업에 와서 학생들을 위해 신체움직임 교실을 열었다. 학생들과 춤추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였다. 항상 밝은 미소와 사랑으로 반티에이 브리업 학생들과 함께했던 그녀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캄보디아의 최대 명절 ‘졸츠남’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졸츠남’ (캄보디아 새해)을 맞아, 반티에이 뿌리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센터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학생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행복해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한 주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밤 음악을 틀어 놓고 캄보디아 전통 춤을 함께 추며 서로 새해의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선생님들과 직원들만 남아 제사를 지내며 풍성한 명절 음식을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
Happy
Khmer
New Year

학생들을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뚝뚝’ 구입

6월 3일, 반티에이 뿌리업에 뚝뚝이 생겼습니다. 의료보건환경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아플 때,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뚝뚝을 구입하였습니다. 뚝뚝은 캄보디아의 전통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에 평균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달려 있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구입한 뚝뚝은 오토바이 뒤에 10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좌석이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고, 아픈 학생들이 편안하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뚝뚝 지원을 도와주신 한국의 천주교대교구 산하의 NGO,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의 새로운 디렉터

2008년부터 반티에이 뿌리업의 디렉터로 활동해 오신 오인돈 신부님께서 반티에이 뿌리업의 활동을 종료하시고, 6월 1일부터 새로운 디렉터로 임명되신 Greg 신부님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생이신 Greg 신부님은 오랜시간 캄보디아 JSC(- Jesuit Service Cambodia)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오인돈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Greg 신부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주말마다 예뻐지는 반티에이 브리업: 주말 이발, 미용반 개설

매주 일요일마다 이발과 미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학생 28명이 이발 반에, 여학생 23명이 미용반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용반 여학생들은 캄보디아의 변화하는 유행에 발맞춰 네일아트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발반 남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이웃마을을 방문하여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이.미용반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예 워크샵 스태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시엠립에 가다

목공예 워크샵 스태프 4명이 나무에 색을 입히는 다색기법을 배우기 위해 시엠립에 있는 사회적기업 Angkor Artwork에 파견되었습니다.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시엠립에 머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태프들은 생애 처음으로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 와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모두 웅장하고 아름다운 앙코르 와트의 모습에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을 가득 안고 남은 시엠립 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앙코르 와트에서 받은 영감과 함께 탄생될 반티에이 브리업의 새로운 목공예 작품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농장 개설

5월 20일부터 반티에이 브리업 외부농장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농장으로 사용될 땅은 JSC에서 기증하였고, 반티에이 브리업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농장은 농업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인턴쉽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농장에 집을 지어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준비가 끝날 예정입니다. 외부농장의 준비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단장한 Craft Peace Cafe

반티에이 뿌리업의 프놈펜 직영숍인 Craft Peace Cafe가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폴란드 디자이너인 Iwona Bara의 도움으로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티에이 뿌리업을 알리는 창구, 반티에이 뿌리업 졸업생들의 일터, 사진전, 음악회, 영화제 등을 여는 문화 교류 공간, 따가운 여름 햇살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오세요!



하비에르 예수회 학교 건립을 위한 음악회

1991년, 반티에이 뿌리업을 설립한 캄보디아 예수회 (Jesuit Service Cambodia)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인 시소폰 농촌 지역에 예수회 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한국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성당에서의 공연에 이어서 6월 9일,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PPIIA 콘서트 홀에서 이틀에 걸쳐 학교 건립을 알리기 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마크 코소워와 피아니스트 오지원이 학교 건립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선물을 선사하였습니다. 예수회 학교 건립의 시작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b: <http://jesuitschoolcam.org/>
-기쁨 나눔 재단: 02-3276-7710
-후원계좌: 학교설립기금마련통장 우리은행
1005-280-501289 (재)기쁨나눔



이달의 프로덕션

넛북 케이스

Size: 28x28

Material: Cotton Kroma Patch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Saint Ignatius' College Riverview
Wah Yan College
Brenda Shum



반티에이 뿌리업 Banteay Prieb은 지뢰사고, 전쟁, 소아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그로 인한 경제적 곤궁,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 내 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자립을 위해 JSC(Jesuit Service Cambodia)에서 설립한 장애인직업훈련센터입니다.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재) 한국 예수회

신한은행 : 140-006-960087

국민은행 : 011237-04-001984

프로덕션 제품 구입 안내

http://issuu.com/banteayprieb/docs/production_catalog

Email. banteayprieb.production@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www.banteayprieb.org

www.craftpeacecafe.com

facebook.com/banteayprieb

facebook.com/craftpeacecafe

www.youtube.com/user/banteayprieb

Email. banteayprieb@gmail.com

Phone. +855 12617721

Post Adress

P.O BOX 880, Phnom Penh, Cambodia